



부산 광안리 제2해수욕장 화장실 전경



김 안 명 만 환경국 하수도과 과장

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2002년 월드컵과 12월 1일 열리는 본선 조 추첨, AG을 앞두고 꾸준히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제2의 행정수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 광역시청을 방문하였다.

부산광역시 소개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도시인 부산은 한반도 남쪽의 관문으로 천연조건 및 국내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국제적으로도 태평양 연안의 우수한 항구 중 하나가 되었다. 더불어 각종 문화행사의 도시로서도 뛰어난 역할을 보여주는 부산시는 매년 8월 부산 바다축제를 비롯하여 얼마 전 열렸던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여 매년 10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공중화장실 현황

부산시는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의 행사준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86개소와 기타 주요화장실(공공시설, 다중이용, 접객업소) 42,350개소에 대한 실태정비에 착수하여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고 있다. 화

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찾기쉬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화장실 수량의 확보와 어느 곳에서도 찾기 쉽도록 안내표시를 확충하였고 이용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한줄서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캠페인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총 42,636개소중 28,896개소의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을 68%를 달성하였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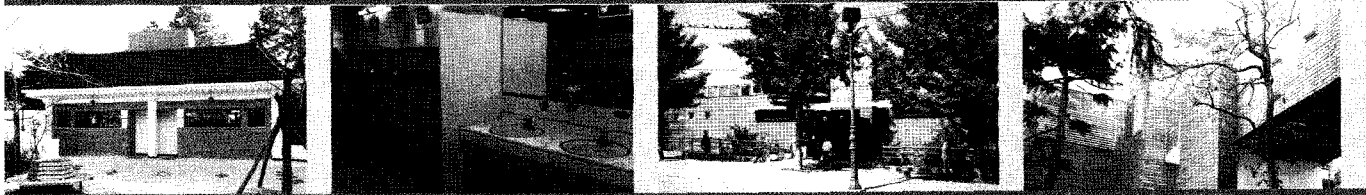
첫째,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화장실정비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 공모전과 전시회, 아름다운화장실 콘테스트 등 다수의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 기동점검반(320건 점검조치), 여름의 행락 철 등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 개방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 한국관광공사,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와 공동으로 개방 및 청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 개축 후의 범어시 주차장 화장실 외부와 내부 ▲ 용두산공원 공중화장실 정면과 뒷면(건축설계 방법이 독특하다)



개방화장실 스티커

셋째, 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파출소, 주유소, 은행 등 1,117개소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부산은행(174점포), LG주유소(172개소)에 이용안내 스티커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82개소에 달하는 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를 하였다. 넷째, 시민(단체)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 개최, 「화장실문화 만들기」 시민선언식, 모델화장실 내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용두산 공원 화장실

한국관광공사의 최우수 화장실에 용두산 공원 화장실이 최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용두산 공원에 관해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용두산(높이 49M)은 부산 시내에 있는 구릉으로서 부산 3명산의 하나인데,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하여 송현산이라 하였다가 이후 산세가 흡사 용의 형상으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왜구들을 삼켜버릴 기상이라 하여 용두산(龍頭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평일 1200~2000여명, 토,일요일 2000~5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0년 10월 총 공사비153백원으로 신축한 용두산 공원 화장실은 공원 내 기존화장실들이 공원 광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노약자 등 이용하기에 불편하였으나 녹지공간으로 되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과 일체감을 줄수 있도록 공원의 높이에 맞게 설계하여 공중에 떠 있는 말 그대로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새로운 설계의 개념이 돋보였고 외벽또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외부의 벽체를 목재(적삼목)재질로 마감처리 하였으며 화장실 내부 천장 부문을 채광이 용이하도록 이중유리창으로 시공하여 화장실 내부가 밝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엄마와 함께 하는 공간을 넓게 만들었고 화장실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2명의 관리인이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하여 바닥의 물기 등 지저분한 곳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월 5만여명의 방문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변기수가 아쉬웠고 고급화된 내부공간을 창출하였으나 용두산 공원은 평일 이용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의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미숙하고 파손 및 분실되는 사례도 많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리를 맡고 있는 대청공원사업소의 담당자의 하소연도 있었다.



▲용두산공원 여자화장실 내부 천장을 유리화하여 자연채광이 뛰어나다.

대형행사를 훌륭히 준비하고 있는 부산

12월 1일 열릴 본선 조 추첨행사 등 다가올 큰 행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만들어 가고 있는 화장실문화운동은 심어 놓고 잘 가꾸어 싹이 트여 열매를 맺듯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어 그 어떤 행사도 훌륭히 치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